



FA 모범생 해결사 본능 관리의 대가

야구는 '최형우처럼'



2017년 KIA 이적 후 단 한 번도 엔트리 빠진 적 없어
8년 연속 200루타·역대 4번째 1300타점 눈앞
고질적 허리 통증 인내로 극복... '꾸준함' 귀감

부상의 2020시즌 그래서 더 빛나는 최형우다. 올 시즌 KBO리그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늦은 개막, 빠듯한 일정 속 달라진 일상과 스케줄에 '부상'도 유난하다. KIA도 부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상 이화두가 된 올 시즌 최형우는 여전한 실력과 부상 관리로 최형우답게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형우는 2017시즌 '100억 새아'가 돼 KIA 유니폼을 입은 뒤 단 한 번도 엔트리에서 빠진 적이 없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만큼 부상 없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의미다. 이적 첫해 142경기를 소화한 최형우는 2018년 143경기에 나왔다. 지난 시즌 허리 통증으로 몇 차례 라인업을 채우지 못했지만 136경

기에 출전했고, 올 시즌에도 팀이 105경기를 치르는 동안 102경기를 책임졌다. 성적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해결사'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꾸준하고 강렬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최형우는 지난 16일 SK전에서는 3회초 역전 투런으로 KBO리그 통산 8년 연속 200루타 기록을 달성했다. 역대 4번째 1300타점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부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수는 크고 작은 통증을 안고 있다. 최형우는 고질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시즌 전에도 최형우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다. 그렇지만 자리를 비우지 않고 FA 최고의 미덕을 보여준 최형우는 '습관'이라

고 말한다.

최형우는 "아파도 참을성이 강하다. 다른 선수가 5를 잡는다면 나는 7, 8을 잡는 게 성격이 됐다"며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참고 하다 보니 습관이 됐다. 참는 게 몸에 배어있다"고 말했다. 방출의 아픔을 겪었던 최형우는 인내로 부상을 이겨내고 있다. 무조건 참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최형우도 안다.

최형우는 "나는 무조건 뛰었다"면서도 "장·단점은 있다. 나는 잘된 경우다. 참고하다가 기록과 이미지도 나빠지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다. 무조건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좋았던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무조건' 뛰었던 최형우도 이제는 나이를 생각한다. 팀 내 야수 최고참으로 예전과 달리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진짜 안 좋은 것이다"며 웃은 최형우는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안 좋으면 한 번씩 쉰다.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 쉬고 좋아질 것 같으

면 쉰다. 144경기 생각해서 쉬기도 한다"고 이야기 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만큼 스스로 조절하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고 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훈련 시간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나오는 선수이기도 한 그는 경기 전 스트레칭에 공을 들이면서 새로운 하루를 맞는다.

최형우는 "루틴은 아니다. 나는 루틴은 없다. 유일하게 루틴 없는 선수이다. 루틴을 안 만들려고 한다"며 "올해는 지명타자나 전날 쉬었거나, 타격이 좋지 않아서 많이 뛰지 못했을 경우 땀을 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타석에서 결과까지 '모범 FA'인 최형우는 후배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FA 마지막해를 보내고 있는 최형우에게도 '후배'는 더 특별한 존재가 됐다.

최형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작성한 기록에 만족한다. 다른 욕심 없이 이기는 것만 신경 쓴다.

팀이 많이 이겨서 분위기도 좋고 애들도 올라오면 좋겠다"며 "내년에는 180도 바뀐 후배들이 되면 좋겠다. 실력있으면 2년, 3년 하면 다 올라온다"고 후배들의 성장세를 기대했다.

최원준이 특별한 선배로 여기는 최형우, 최형우가 최원준을 보는 마음도 그렇다.

최형우는 "계속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눈 좀 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군대 문제가 아쉽다"며 "질문이 많아졌다. 1년, 2년 하면서 생각하고 다가오는 게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자신과 같은 '방출 스토리'가 있는 투수 김재열에게는 '후회 없는 승부'를 기대했다.

최형우는 "아직은 친해지지 않아 뭐라고 이야기하는 못 해졌다. 친해지면 말하겠겠다(웃음)"며 "첫 등판 때 마음이 이해된다. 더 자신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후회 없게 던지면 좋았을 텐데 주자 나가니까 구속이 7-8km 줄더라. 자신 있게 하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주말 상위 스플릿 진출 향한 사활 건 한판



20일 성남과 리그 마지막 경기...펠리페·엄원상·윌리안 출동
리그 상위권 울산·전북과 최근 무패 경기...자신감 상승
엄원상, 첫 친정 상대하는 나상호와 금호고 동문 대결



펠리페



엄원상



윌리안

돌아온 윌리안이 광주FC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승리에 앞장선다. 광주는 오는 20일 오후 3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2020 K리그1 2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스플릿라운드를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다. 광주는 지난 15일 열린 상주상무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통탄의 0-1패를 기록했다. 3위 상주를 상대로 혼신을 다한 승부를 펼쳤지만 후반 45분 '석연치 않은 비디오 판독'으로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대구, 전북, 울산 등 상위권 팀을 상대로 7경기 연속 무패(2승 5무)를 달리고 있었던 만큼 아쉬웠던 결과였다. 다시 한번 VAR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안타깝게이다.

광주는 앞선 아쉬움을 승리로 달래겠다는 각오다. 이번 경기는 설욕전이기도 하다. 지난해 K리그2 우승팀 광주는 올 시즌 성남을 상대로 K리그1 복귀전을 치렀다. 오랜시간 만반의 준비를 하며 기다렸던 무대였지만, 광주는 부담과 중압감으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0-2패를 당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광주는 최근 1위 울산, 2위 전북을 상대로 승리와 같은 무승부를 연 출하며 축구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K리그1 무대 적응을 끝낸 펠리페가 K리그2 득점왕 출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엄원상도 스피드에 세밀함까지 더해 광주의 특급 전력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앞서 퇴장 징계로 쉬어갔던 윌리안까지

돌아오면서 광주의 삼각편대가 다시 구성됐다. 9위 성남은 8위 광주와 22점으로 승점이 같다. 막강 방패가 성남의 자랑이다.

올 시즌 21경기에서 19골을 그치면서 최하위 인천(15득점), 11위 수원(18득점)에 이어 최소 득점 3위. 반면 24골을 허용하면서 실점부문에서 울산(15실점), 전북(19실점), 상주(23실점)에 이어 4위에 올라 있다.

광주는 삼각편대로 성남의 방패를 뚫겠다는 각오다. 흥미로운 '광주 득점왕 출신'의 맞대결도 펼쳐진다.

성남을 통해 K리그로 돌아온 나상호가 옛 동료들과 적으로 만난다. 광주의 공격수 역사에 이름을 남긴 펠리페, 나상호 두 '득점왕'의 발끝에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또한 광주의 미래로 주목받는 엄원상과 나상호의 '금호고 동문' 대결도 흥미롭다.

주장 여름은 "강팀과의 연전, 무패행진을 통해 선수단 모두 큰 자신감을 얻었다. 한 경기 진 것에 대해 의기소침하지 않겠다"며 "성남이 시즌 첫 패를 안긴 팀인 만큼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반드시 복수와 함께 승점 3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안양으로 가 19일 오후 6시 30분 승리 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 포함 5경기 무패 중이다. 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두 경기 뒷심이 아쉽다.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장준영에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2-2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앞선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도 후반 40분 동점골을 내주면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전남이 승리로 6경기 연속 무패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존슨, 비밀병기는 '2번 아이언'

PGA US오픈서 드라이버 대신 2번 아이언 티샷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US오픈을 앞두고 비밀병기를 새로 챙겼다.

존슨은 그동안 잘 치지 않던 2번 아이언을 이번 대회에 들고 나갈 골프 가방에 챙겨 넣었다고 17일(한국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대신 지난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을 이끈 7번 우드를 썼다.

로프트 21도짜리 7번 우드는 존슨에게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 때부터 사용한 7번 우드는 플레이오프 3차례 대회에서 우승-2위-우승이라는 빼어난 성과를 낸 일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US오픈에 앞서 약명 높은 윈드풋 골프클럽에서 연습 라운드를 치른 존슨은 7번 우드를 내렸다. 그리고 로프트 17도짜리 2번 아이언을 채웠다.

그는 윈드풋에서는 드라이버 대신 2번 아이언으로 티샷할 생각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휘어져 나가는 낮은 탄도의 드로 구질로 티샷하는 게 윈드풋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번 아이언은 초기 발사각이 낮고 드로와 페이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코스 특성에 맞춰 장비를 바꾼 선수는 존슨뿐 아니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드라이버를 교체했다. 스피스는 지난 시즌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301야드로 늘었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이 떨어지게 고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페어웨이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로프트 10도짜리 드라이버를 쓰기로 했다.

2006년 이곳에서 72번째를 더블보기로 우승을 놓쳤던 필 미켈슨(미국)은 최근에 사용하던 클럽 구성과 다르지 않다.



다만 2006년 대회 때 썼던 2번, 3번 아이언은 이제 쓰지 않는다. 대신 5번 우드와 워지 1개가 늘었다. /연합뉴스